

복음의 역사를 남긴 전도자 누가-복음으로 여는 누가복음-

이사야 34:16, 누가복음 1:1-4

정운돈 목사님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열쇠를 한 마디로 말하면, 탕자같은 우리를 주님이 조건 없이 사랑해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돌아오고 구원의 축복 받게 되기를 바란다. 신앙생활은 얼핏 어려서 보인다. 공연 보러가고 놀러가고 하면 재미있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예배하러 와 있으니 재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탕자의 삶은 결국 지치게 되고, 후회만 남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 참 안식, 참 성공을 누릴 수 있다.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어릴 때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데, 아저씨 열 명이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 시냇물을 막고 웅덩이에 있는 것을 파내는 것이었다. 아침에 가면서 본 광경인데, 한 나절을 놓고 돌아오는데도 아직도 파고 있더라. 목적이 무엇인가 했더니, 안에 있는 장어를 잡겠다는 것이었다. 드라크마 비유를 읽으니까 그 생각이 났다. 드라크마 동전 하나는 몇 백 원, 몇 천 원 가치인데, 그게 빠졌다고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찾는 것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작은 인생을 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엄청난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지만, 원래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신 것이다. 우리가 귀한 결정을 했는데, 어린아이를 만들고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영상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기로 장로님들이 결의하셨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누가처럼 집중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서론 : 사복음서에 대한 질문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행적을 기록한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한다. 이 사복음서는 신약 27권 중에서 처음 네 권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한다. 오래 신앙생활하신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새가족들은 잘 모른다. 교회 나온지 2, 3년이 되어도, 빌레몬서 찾는다 하면 못 찾는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눈 감고도 찾겠지만 새가족들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한다. 새가족 분들은, 신앙의 단계가 천 단계는 되는 것 같다. 예수 영접하기 전까지도 천 단계쯤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영적 서밋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 하면서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마태복음을 펴더니 낱고, 낱고, 낱고, 낱고 그런다. 왜 이런 족보가 나오는가 할 때 알아야 할 것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점이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족보로 드러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족보 속에 드러난다. 죄인들도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다. 5년 전부터 자살예방 팀을 짜서 활동을 해 왔는데, 공중에 가면 싸이코패스 치료 감호소가 있다. 거기에 가서 치료하고 살리고 복음을 전한 것이다. 전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다. 귀신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만 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고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아야 그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계속 보는 것이다.

(1)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복음서를 보는 새가족과 성도들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다. 첫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네 권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래야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록이 되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라 내용이 다르지만, 그것은 서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수님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자 보았던 것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축자영감(逐字靈感)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내력을 설명하려고, 여러 사람이 붓을 들었다고 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하면서 글을 쓴 것이다. 모세 때처럼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약의

많은 성경은, 복음 가진 이들의 현장 기록이 성경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의 생애를 두고 네 사람이 동시에 써서 남긴 일이 없다. 공자의 생애를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기록한 것이다.

(2) 둘째로, 사복음서의 제목은 저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복음을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으로 정리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복음, 그리스도복음, 성령복음, 이렇게 써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넣었다. 왜인가? 그들이 복음을 잘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장을 두고 자기의 방식으로 기록을 한 것이다.

(3) 셋째로, 사복음서에는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르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일점일획도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똑같은 현장에 있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다. 너무 중요하기가, 기록으로 남긴 경우도 있고, 암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구술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 당시에 바로 기록된 게 아니었다. 수십 년 후에 기록되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영상으로 남기고 있지 않은가? 시대마다 그렇게 개념이 다르고, 세우는 시스템이 다르다. 교회도 솔로몬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 지금 시대가 다르지 않다. 사복음서의 내용이 약간씩 다른 이유는, 사복음서가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 그것을 전달받아 기록한 증인문서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찾아보면, 성경의 오류가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더욱 완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성경은 신비한 것이, 한 군데만 보면 틀리는 것 같은데, 그 책을 맞춰서 읽게 되면 보완이 되고 완성이 된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성경이 완벽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풀려고 하면 이상하게 되지만, 구약을 잘 이해하면 정확하게 보이는 것과 같다.

1. 누가복음의 특징과 누가가 받은 응답

첫째로, 누가와 누가복음의 특징과 응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누가는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1)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사실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고, 사도들과 같이 있었던 시간이 가장 짧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안디옥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등장한다. 사도행전 중에서도 중간부터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에루살렘에서 잡혔을 때도 바울과 동행했다. 그리고 바울이 2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 누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제일 자세하게 적혀 있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경험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조사하고 알게 된 내용을 데오빌로에게 적어서 보낸 것이다. 이런 열정이 누가에게 있었다.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현장에도 짧은 시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필요한 메시지와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족으로 덧붙이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낸 서신인가? 데오빌로 각하다. 그 1편이 누가복음이고 2편이 사도행전이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존칭을 쓰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부른다. 그만큼 양육되고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2) 누가는 복음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참된 헌신자였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으므로, 몸이 약하고 병들었던 바울을 평생 간호하고 치료해주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 곁에 아무도 없고 누가만 있었다고 했다. 다른 사람은 다 없어도 누가는 있어야 한다.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 온 몸이 병들었으며 안질(眼疾, 눈병)까지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도움이 필요했겠는가. 끝까지 도왔던 누가 같은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안디옥교회에서 바울을 후원했지만 계속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바울은 팀으로 움직였다. 전도현장을 다니면서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어떻게 했겠는가? 가는 곳마다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고, 또 하나가 누가였을 것이다. 의료인이니까 가는 곳마다 진료를 해 주고 그렇게 얻은 것을 가지고 바울 팀의 생활을 도운 것이다. 내가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강의를 했더니, 은혜를 받은 사람이 현금할 돈은 없어서 장갑을 들고 오더라. (웃음)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는 그랬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례로 한 손에는 답을, 한 손에는 오리를 들고 오고 그랬다. (웃음)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다. 누가도 그런 것을 받아오면서 바울 팀에서 식주인 노릇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답을 주실 것이다. 그 팀을 찾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 팀을 만나면 반드시 움직이게 된다. 5년 전에 자살 예방을 두고 열정

★ 축자영감설은 기계적 영감설이라고도 한다.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까지 성령께서 직접 쓰셨고, 저자는 그것을 손으로 옮기기만 했을 뿐이라는 이론이다. 개혁교회는 이러한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한다. 성령께서 저자를 감동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였으되, 저자의 경험과 개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해서 팀이 되니까 여기에 장로님도 오시게 되고, 램프들도 오게 되었다. 이렇게 수백 명이 만나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교도소의 문들까지도 열리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면 하나님은 답을 붙여주실 것이다. 교회 안의 모든 복지사역도 마찬가지다. 캠프도 마찬가지다. 먼저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나와야 지속할 수 있다. 여러분이 교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야를 찾아내어야 한다. 교단 안에서도 찾아야 한다. 그것을 발견하고 일심, 전심, 지속해야 한다.

(3) 누가는 자신의 지혜와 문장력으로 데오빌로같은 고급 공무원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한 전도자였다. 누가복음의 일차 수신자는 로마의 고급 관리와 귀족들이었다. 우리 램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에도 마광수 교수가 자살했지 않나. 천재적인 사람인데 그 옆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 살리는 역할을 하는 우리 램프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4) 누가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한 매뉴얼을 남겼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남겼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탕자 같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이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했다. 이제 9가지 삶이다. 예를 들어서, 자리에 앉을 때 뒷자리에 앉지 말고 끝에 앉으라고 했다. 그게 규모다. 열 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했는데 감사하다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 뿐이었다.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라. 잘난척하고 뒷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이제 복음의 내용이며,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속에 담겨 있다. 사도행전에는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살아있는 매뉴얼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도전략은 누가가 기록한 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누가 자신이 늦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자 했던 것이다. 나도 1996년에 다락방을 접했는데, 보니까 이미 이 운동이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났더라.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핵심훈련메시지 비디오투를 다 샀다. 교회 한쪽 벽에 꽂았더니 몇 백 개가 되더라. 그 모든 비디오투를 다 들었다. 들으면서 다시 들을 것을 별표로 표시해서 별 다섯 개, 별 네 개 식으로 구별했다. 그리고 또 듣고 또 들었다. 그러니까 조금 알겠구나 싶었다. 우리 세계복음화전도협회 훈련을 처음 받게 된 어느 목사님은 6개월 동안 계속 듣고 훈련을 받았더니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겠다고 하더라. 그렇게 알아나가는 법이다. 누가는 그렇게 했다. 복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고아원 선생님이 한 분은 찬송가를 배우겠다고 600곡이 들어있는 CD를 할부로 샀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지금은 도의회 의원의 부인이 되어서 성공자의 가정을 세우고 있다. 새가족 여러분은 모르면 겸손하게 물어보고 배워 나가라. 먼저 믿는 분들은 누가가 새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정리하고 전달했던 것처럼 도와주시기 바란다.

2. 누가복음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붙잡고 묵상해야 할 말씀

큰 두 번째로, 누가복음의 내용 중에서 붙잡고 묵상해야 할 말씀을 몇 가지 나누어야 되겠다.

(1) 누가복음 2:40, 52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자녀가 이런 응답을 받기를 바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적 성장, 육신적 성장,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이다. 우리교회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램프가 너무 많다. 교회에서 사랑받는 램프는 어디를 가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2)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미를 찾는 비유,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탕자같은 우리라도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3) 아주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 16:19-31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 물질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과 성공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지같이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거지가 되는가? 그럴 수가 없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후대가 천 대까지 복을 얻는 응답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후대가, ‘야빠는 돈이 다구나. 성공이 다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한 번은, ‘나는 그리스도가 다다, 하나님이 다다, 복음의 길이 다다’ 하는 것을 자녀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면서 돈이 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심는다면 자녀는 망하게 된다. 누가는 의사였고 엘리트였다.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전도자의 길을 갔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부자를 ‘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내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네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 사람이 신

앙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했는데 사실 목적은 돈이었다는 말이다. 부자들이 드린 많은 액수의 현금보다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은 더 칭찬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결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 번 결단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한다.

(4) 그러면 현금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인가?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부자가 내는 많은 현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다. 현금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압류조치가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다. 교회에서 현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공이 다였지 않나. 돈이 다였지 않나. 그것을 돌아보고 거듭나라는 것이다. 성경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했다. 믿음의 분량이 많은 분들은 감동을 받는 대로 하면 된다. 경제가 어려운 분은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하면 된다. 그런데 교회는 또,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있고 몇 대째 믿는 사람도 있지 않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메시지를 붙잡으면 된다. 오늘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응답을 붙잡으시기 바란다.

(5)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에는 찬양이 많이 나온다. 누가는 음악을 잘 했다.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은 다 노래로 되어 있었다. 신약은 그렇지 않은데 유일하게 찬양이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마리아의 찬양, 목자들의 찬양이 나온다. 그만큼 누가가 음악성이 뛰어났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복음 가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전도자의 삶이다. 앞으로 우리도 여러 가지 복지 사역을 하고 후대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중독자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교회를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잔치에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권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고침 받은 열 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앵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등, 다른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42가지가 누가복음에 실려 있다. 누가와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한다.

결론 : 누가복음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언약의 메시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언약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1) 나를 찾으라는 것이다. 불신자 이방인으로 살았던 누가는 바울 팀을 만나기 전에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의사 누가는 세상이 열두 가지 질병에 빠져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육신을 치유하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병을 치유해야 되겠다, 엘리트들을 치유해야 되겠다 하는 자신의 천명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신이 발견한 복음을 잘 정리해서 엘리트까지 복음화하는 인생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것이 나를 찾는 것이다.

(2) 둘째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발견해야 되겠다. 누가는 의사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영적 서밋의 답을 가지고, 이제는 기능서밋도 되어야 한다. 누가는 복음의 역사를 기록으로 정리하고 역사로 남기는, 나의 것을 발견한 것이다. 누가가 참 재능이 많았다. 우리 중에도 누가 같은 램프가 많다. 어제도 정치계 선교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본인도 부인도 대단하다. 선교사님 딸은 금융기관에서 일하는데 큰 연봉을 받고 일한다. 본인도 대단한데 며느리가 될 사람도 대단하다. 얼마나 능력과 재능이 많은지 모른다.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릴 만큼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3)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도전해야 되겠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 감옥까지 들어갔다. 그것이 나의 현장이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까지 따라갔다. 그러면서 전도자 바울과 함께 끝까지 남는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았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가장 값지고 영원한 것을 남긴 전도자로 살았던 것이다. 바울과 누가처럼, 복음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에 영원히 남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실 줄 믿는다. 비록 우리가 탕자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50년 동안 인도해주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받고 저주받고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며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조상의 죄까지 해결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우리는 염려했고, 갈등했고, 불안해했으며,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